

Today's News Clip

오늘의 주요기사

2023년 11월 1일 수요일

새로운 강원

행복한 미래

함께 여는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목 차

江原日報	03면	도의회, 지방분권 박람회 참가	1
강원도민일보	03면	강원·제주·세종·전북 의장단 오늘 지방분권 의정박람회	1
江原日報	온라인	황성의 가을 “孝로 깊어간다”	2
江原日報	13면	고성군 이장 한마음체육대회	3
강원도민일보	17면	고성군 이장 한마음 체육대회	3
강원도민일보	02면	강원 '국비확보 상황실' 개소 예산심의 신속 대응	3
강원도민일보	10면	도내 최초 후평초 운동장 지하주차장 조성	4
江原日報	14면	사회교육프로그램 발표회	4
강원도민일보	23면	강원특별자치도행정동우회 "전국 최고 봉사단체 성장하길"	5
江原日報	19면	[강원포럼] 지역소멸 예방을 위한 학교 이전	6
강원도민일보	16면	[동정] 엄기호(철원·왼쪽) 도의원·정문걸 철원교육장	7
강원도민일보	12면	[동정] 최승순 도의원	7
강원도민일보	10면	[동정] 박기영(왼쪽) 도의회 안전건설위원장·이승진(비례) ...	7
江原日報	온라인	[동정] 강원특별자치도의회	7
강원도민일보	02면	민선8기 도정 감사 봇물 '살얼음판'	8
江原日報	01면	산림엑스포·파크골프 인기에 9월 도내 관광객 '1,352만명'	9
江原日報	02면	수소클러스터 13일 예타 최종 평가	10
강원도민일보	04면	춘천시립미술관 '사업성 미비' 역세권개발사업 포함 불투명	10
江原日報	07면	도내 건축 인허가 면적 1년 새 ‘반토막’	11
江原日報	12면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단 예타 통과 전력투구"	11
江原日報	04면	시·군체육회 "양구·태백 대회 출전 보이콧"	12
강원도민일보	05면	때아닌 우박·병해충 반복 가을배추 농가 울상	13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서민층 생계비 부담 확 줄여야	14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강릉 바이오국가산단 박차 가해야	15
江原日報	19면	[사설] 소 럼피스킨병, 밥상물가 자극하는 일 없어야 한다	16
江原日報	19면	[사설] 예산국회 시작... 道, 확보된 국비는 반드시 지켜야	17

江原日報

2023 11 01 ()

03

도의회, 지방분권 박람회 참가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1일 오후 2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열리는 지방분권 의정박람회에 참가한다.

제주자치도의회가 주관하는 이번 박람회는 '제주에서 전(북)하는 자치분권이 강원한 세(종)상'을 제목으로 열린다. 특별자치시·도로 출범한 강원·제주·세종과 출범이 예정된 전북 의회가 모여 지방의회의 역할과 협력 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댄다. 권혁열 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4개 시·도의회 의장은 특별자치시·도의회 동반 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할 예정이다. 이현정기자

2023 11 01 ()

강원도민일보

03

강원·제주·세종·전북 의장단 오늘 지방분권 의정박람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를 비롯한 제주·세종·전북 등 4개 시·도의회 의장단이 1일 제주에서 한자리에 모인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일부터 2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강원·세종·전북 광역의회를 대상으로 지방분권 의정박람회를 연다.

강원과 제주, 세종은 '특별자치시·도'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고, 전라북도도 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박람회는 각 지역의 특성과 특별법 목적에 맞는 지방자치 및 분권모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원도의회에선 권혁열 의장, 김기홍·한창수 부의장, 심영근 의회운영위원장, 최승순 강원특별자치도 지원특위 위원장 등 5명이 31일 저녁 제주에

도착했다. 4개 시·도 의장은 1일 오후 제주도의회에서 특별자치 시도의회 동반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다.

이어 지방분권 토크콘서트에 나설 예정이다. 2일차인 2일에는 제주신화월드, 제주항공우주박물관 등 특별자치 권한 특례 이용 사업현장에 방문할 예정이다. 이설화

2023 10 31 ()

江原日報

횡성의 가을 “孝로 깊어간다”

9개 읍면 차례로 효잔치와 축제... 지역 화합 한마당



안흥면 효잔치.



청일면 효잔치.



공근면 효잔치.

횡성 9개 읍.면에서 펼쳐지는 효(孝)잔치로 횡성의 가을이 깊어지고 있다.

65세 이상 인구가 33%에 육박해 초고령화를 도내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 횡성에서는 지난 달 17일부터 오는 8일까지 9개 읍.면에서 차례로 효잔치가 열린다.

횡성군새마을회(회장:김은영)가 주관하는 효잔치에서는 특별공연, 축하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식사 대접으로 지역 어르신들에게 흥겨운 시간을 마련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감천면 효잔치가 10월 18일 감천초 체육관에서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다음날인 19일 공근 어울림타운에서 650여명, 20일 청일다목적복지체육센터에서 400여명을 초청해 잔치를 벌였다.

지난 31일에는 안흥면다목적센터에서 500여명 잔치가 열리는데 이어 1일에는 서원중 체육관에서 360여명, 2일에는 우천문화체육센터에서 700여명, 오는 3일에는 강림면 각림건강복지체육센터에서 250명이 참석하는 행사가 열린다.

오는 8일에는 횡성체육관에서 1,000여명이 참석하는 횡성을 효잔치가 열려 대미를 장식한다.

효잔치에는 김명기 군수, 김영숙 군의장과 군의원, 한창수 도의회 부의장, 최규만 도의원, 지역기관단체장 등이 대거 참석해 어르신들을 위로하고 축하한다.

또 새마을지회를 비롯한 지역 봉사단체들이 대부분 참여해 음식 대접, 서빙, 수송 지원 등에 유기적인 업무 분담으로 주민 화합을 도모한다.

김명기 군수는 “9개 읍면 효잔치를 통해 건(健)중년 지역인 횡성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고령층 주민들이 보다 건강한 생활을 영위해 튼튼한 공동체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江原日報

2023 11 01 () 13

강원도민일보

2023 11 01 () 17



고성군 이장 한마음체육대회 고성군 이장 한마음체육대회가 지난 31일 고성종합체육관에서 김일용 군의장, 지승섭 부군수, 이지영 도의원, 전영록 전국이·통장연합중앙회 강원도지부장, 전영수 고성군이장연합회장, 기관·단체장, 5개 읍·면 이장단 등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고성군 이장 한마음 체육대회 제20회 고성군이장한마음체육대회가 31일 고성종합체육관에서 지승섭 부군수, 김일용 군의장, 이지영 도의원, 전영록 전국이통장연합중앙회 강원특별자치도지부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강원도민일보

2023 11 01 () 02



강원특별자치도 국비확보 전략상황실이 31일 국회에 차렷했다.

강원 '국비확보 상황실' 개소 예산심의 신속 대응

미반영 사업 증액 주력

강원특별자치도가 31일 국회 내 국비확보 전략 상황실을 개소하고, 국회예산 심의대응 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도는 이날 정광열 도경제부지사, 이무철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열었다. 국비확보 전략 상황실에는 김만호 도 예산과장을 중심으로 국비전략팀이 상주, 도서울본부와 함께 각 상임위 예비심사와 예결위 종합심사 단계마다 심의동향 파악 및 신속 대응 체계를 유지하게 된다.

도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올해보다 5.5% 증가한 국비 9조 5167억 원을 확보했다. 반도체 소모품 실증센터 구축(20억원)과 의료 AI반도체 전문

인력양성센터 구축(30억원), AI기반 K-디지털 헬스 시장 진출지원 플랫폼 구축(30억원) 등 주요 첨단 산업 및 SOC(춘천~속초철도·3214억원, 제천~영월 고속도로·747억원) 사업 등이 반영됐다. 이에 따라 도는 미반영 10개 사업(276억원)의 국비 반영과 SOC·지역 현안 등 50여개 사업의 증액을 위해 기획재정부·국회의원 간 소통에 주력할 계획이다. 상임위원회별 심사과정에선 강원도 국비감액을 막는 데 집중한다. 강원도의 주요 미반영 사업은 △미래차전장부품 시스템반도체 신뢰성검증센터 구축(43억원) △AI 헬스 바이오 R&D센터 구축 및 AI솔루션개발 실증(20억원) △차세대 체외진단 실증 및 제품화 지원(56억원) 등이다.

김덕형 duckbro@kado.net

강원도민일보

2023 11 01 ()
10

도내 최초 후평초 운동장 지하주차장 조성

시, 200면 이상 규모 사업 신청
2025년 착공 주차난 해소 기대

주택밀집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학교부지를 활용한 지하주차장 조성 사업 대상지로 춘천 후평초가 선정됐다. 학교 운동장을 활용해 지하주차장을 만드는 사업은 도내 최초다. 31일 본지 취재 결과 춘천시는 강원특별자치도에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후평초 운동장에 200면 이상 규모의 지하주차장을 만드는 사업을 신청했다. 그동안 후평초 일대는 상점가와 주택가 등이 집중돼 있으나 공영주차장이 없어 불법주차 차량이 증가, 어린이들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민원이 잇따랐다. 이에 불법주정차 민원 해소와 주민 안

전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강원도내 최초로 학교 운동장에 지하주차장을 짓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해당 사업은 도비 97억원, 시비 53억원 등 총 150억원이 투입된다.

이와관련, 춘천시는 지난 30일 후평초에서 강원특별자치도, 교육당국, 박기영 도의원, 김지숙·유환규 시의원을 비롯해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차환경개선사업 간담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지하주차장 건립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김지숙 시의원은 “후평초는 골목에 위치하고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

정돼 있어 거주민들의 주차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공사기간 안전 대책과 복합문화센터 형태의 주차장 조성 등의 의견도 제시됐다.

현재 도에 사업을 신청한 상태로, 내년도 첫 추경쯤 도비 확보 여부가 확정될 전망이다. 사업이 확정되면

춘천시는 기획용역, 설계 공모, 공유재산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2025년에 착공 2027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주차수요가 증가로 주정차 불편 민원이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주차장을 조성해 주차환경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승은

江原日報

2023 11 01 ()
14



사회교육프로그램 발표회 삼척시 노인복지관 제9회 사회교육프로그램 발표회가 지난 31일 삼척문화예술회관에서 박상수 시장, 조성운 도의원, 엄기대 노인복지관장과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2023 11 01 ()

강원도민일보

23

강원특별자치도행정동우회 “전국 최고 봉사단체 성장하길”

한마음자원봉사실천 결의대회
지역별 활동사례 발표·토론
청소년동계올림픽 동참 기원



강원특별자치도행정동우회(회장 이우식)는 31일 화천청소년수련관에서 '2023년도 한마음자원봉사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강원특별자치도행정동우회(회장 이우식)는 31일 화천청소년수련관에서 '2023년도한마음자원봉사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우식 회장과 18개 시·군회장, 회원을 비롯해 김명선 강원자치도행정부지사와 최명수 화천부군수, 박대현 도의원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대회는 자원봉사관련 특강과 자원봉사활동사례발표(도·원주시·화천군),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대회는 지난 2020년 지방행정동우회법 제정으로 행정동우회가 공익법정단체가 된 뒤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마련한 자리여서 각별한 의미가 있다.

행사에 참석한 김명선 행정부지사는 저출산 고령화사회인 우리나라 특성때문에 죽을 때까지 일하겠다는 70대 이상의 포부를 소개한 뒤 "같은 마음으로 모인 행정동우회가 다른 지역도 본받을 수 있는 봉사단체로 성장해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를 후원한 최명수 화천부군수는 "처음으로 열리는 행정동우회 자원봉사실천 결의대회를 통해 선배공직자들을 화천에 모시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선배공직자들의 의견이 지방행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인사를 전했다.

이어 진행된 특강에서는 강창훈 고려사회 고용진흥원 고용연구팀장이 "다양한 삶 사회공헌 준비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사례발표는 이승섭 도행정동우회 사무총장이 지난 1988년 창립한 강원행정동우회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진 뒤 원주시 동우회가 원주 살피미

운영', 오후부터는 화천군 동우회가 '동우회 활동사례로 본 지역사회봉사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각각 활동사례를 발표했다.

대회 참가자들은 내년 1월 개최되는 강원청소년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와 시군행정동우회의 자발적 참여를 기원하는 이벤트 행사를 진행한 뒤 오후부터는 화천생활체육공원 파크골프장에서 '제1회 도·시군 행정동우회 파크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이우식 회장은 "2018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렀던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 청소년동계올림픽도 잘 치를 수 있도록 회원들의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의호 eunsol@kado.net

2023 11 01 ()

19

江原日報

대한민국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넓은 면적의 홍천이 지역소멸 예상지역으로 분류돼 안타깝다.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대책 중 하나가 교육환경을 최첨단 미래형으로 개선해 교육하기 좋

은 고장을 만드는 것이다. 교육은 환경이 좌우한다. 그러나 현재 석화초교와 홍천중의 교육환경은 열악하기 짝이 없다. 도시계획이 체계적으로 갖춰지지 않았던 시절 세워져 주택밀집지역과 멀고 중·고교가 같은 울타리 안에서 두 집 살림을 하고 있다.

홍천읍의 인구는 감소 추세에 있지만 도심은 홍천강을 중심으로 신갈마지구, 구도심지구, 연봉지구로 나뉘어 확장되고 있다. 도시형성에서 지역 간의

균형은 매우 중요하다. 교육하기 좋은 고장 만들기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석화초교와 홍천중 이전은 필수적이다.

현재 석화초교는 오래된 건물로 개축 대상일 뿐만 아니라 학생 70%가 홍천강 건너편 신갈마지구 아파트단지에서 거주하고 있어 등·하교 거리가 멀고 불편하다. 매년 학부모들은 자녀를 더 좋은 교육환경의 학구 밖 학교로 입학시키기 위해 위장 전입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학교 진입로는 단일로로 좁고 협소해 등·하교 시간만 되면 북새통을 이

강원포럼

이영욱 강원특별자치도의원



뤄 사고 위험이 높다. 또 경사도가 심한 언덕길이어서 학생들이 걸어서 등교하기 힘들고 겨울철에는 위험요인이 더욱 커진다. 최근 석화초교 인근 지역의 학생 수는 감소세에 있고 신갈마지구에는 신축 아파트 단지가 계속 건설되고 있어 신갈마지구로의 학교 이전이 절실하다.

현재 홍천중은 홍천고와 같은 울타

지역소멸 예방을 위한 학교 이전

리 안에서 각기 다른 학교장이 운영하고 있다. 중학교의 45분 수업과 고등학교의 50분 수업으로 일과 시간 운영이 달라 혼란스럽고 학교 간 크고 작은 갈등이 발생하곤 한다. 중학생들이 고등학교 형들에게 주눅 들어 교실 내 생활이 주를 이룰 수밖에 없고, 이는 곧 정서 불안과 학교폭력 현상으로 나타나 교사들이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근무하고 싶지 않은 학교가 돼 가고 있다.

홍천중은 체육대회, 중간·기말고사, 체험활동 등에서 홍천고의 학사일정에 맞추며 눈치를 봐야 한다. 홍

천고가 수능 고사장인 관계로 수능일에는 홍천중까지 휴업을 해야 하는 등의 문제로 지역에서는 오래 전부터 분리 이전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홍천읍에는 홍천여중과 홍천중 두 개 중학교가 있고, 홍천여중은 인구밀집지역인 신갈마지구에 있다. 홍천중이 또 다른 아파트 밀집지역인 연봉지구로 이전하고 두 학교를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면 교육 경쟁력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내 집 앞 가까운 곳의 학교에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중학교의 남녀공학 전환은 전국적인 추세로 학습 효과가 높고 인성교육에 도움이 되며 성인지 감수성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그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홍천은 제11기계획보병사단과 제3기갑여단의 주둔으로 1만여명이 넘는 장병이 병영생활을 하는 안보 1번지다. 따라서 홍천의 산업은 농업과 함께 군부대가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홍천의 미래형 교육환경 조성은 자녀를 둔 군간부들에게 매력 넘치는 도시가 될 수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미래형 교육환경 개선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석화초교와 홍천중의 이전 요구가 크다. 홍천을 교육하기 좋은 고장으로 만드는 일이 지역소멸을 막는 일이다.

강원도민일보

2023 11 01 ()

16
는한국국방과학고주
민 설명회에 참석한다.



엄기호(철원·왼쪽) 도
의원·정문걸 철원교육
장은 1일 오후 4시 철원
태봉웨딩홀에서 열리

강원도민일보

2023 11 01 ()

10



박기영(왼쪽) 도의회
안전건설위원장·이승
진(비례) 도의원은 1
일 오전 11시 춘천에
서 열리는 강원특별자
치도지체장애인대회
개회식에 참석한다.

강원도민일보

2023 11 01 ()

12



최승순 도
의원은 1
일 오후 2
시 제주특
별자치도
의회에서 열리는 지방
분권 의정박람회에 참
석한다.

江原日報

2023 10 31 ()

[동정]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기영(춘천) 도의회 안전건설위원장, 이승진(비례) 도의원은 1일 오전 11시 춘천 호반체육관에서 열리는 강원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대회 개회식에 참석.

양숙희(춘천) 도의원은 1일 오전 11시 춘천시 동면 감정1리 산149-15번지 독점골에서 열리는 백합나무 단풍축제에 참석.

최재민(원주) 도의원은 1일 오후 1시30분 원주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열리는 복지관 개관 20주년 행사에 참석

엄기호(철원) 도의원은 1일 오후 5시 철원 와수 태봉웨딩홀에서 열리는 김화공고 한국국방과학고 전환 지역 설명회에 참석.

2023 11 01 ()

강원도민일보

02

민선8기 도정 감사 봇물 ‘살얼음판’

도감사위원회 권한 대폭 확대
총 59건 “연간 계획대로 실시”
감사 순기능 강화 등 긍정 평가
일부 현안 진행 무리 의견도

김진태 도정 감사위원회 감사 진행 현황

제공=강원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2022년 7월~12월	2023년 1월~10월	2023년 11월~12월
종합감사 9건	종합감사 12건	종합감사 2건
재무감사 3건	재무감사 11건	재무감사 5건
특정감사 4건	특정감사 11건	
복무감사 3건	복무감사 6건	

민선8기 김진태 도정에서 전임 도정 주요 사업을 포함, 특정감사와 종합감사, 재무감사 등 여러 감사가 복합적으로 얽혀 진행되면서 강원도내 정관사에서 상반된 평가가 나오고 있다.

혈세 낭비 등의 논란을 촉발한 사업 등에 대해선 사업 추진 전반의 과정을 재점검해 꼼꼼하게 들여다보아야 한다는 점을 들어 감사의 순기능이 강화됐다' 라는 의견이다.

반면, 일각에선 특정감사를 포함해 여러 감사건이 이어지자 '공직사회 분위기가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다.

3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민선8기 김진태 도정은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전임 최문순 도정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드론택시 시제기 개발 사업,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개발 사업 등에 대해 송곳 감사를 벌였다. 감사 결과를 토대로 각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오류가 지적되면서 최 전 지사를 비롯해 관련 기관 담당자들이 수사의뢰된 상태다. 여기에 해당 사업건을 추진했던 공직자 등은 인사조치됐다.

지난 6월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도감사위원회의 권한은 대폭 강화됐다. 도본청과 시군, 산하기관은 물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도소방본

부까지 범위를 넓혔다. 도감사위에 따르면 8기 도정 취임 첫 해인 지난해 7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이뤄진 감사는 종합감사 9건을 비롯해 재무감사 3건, 특정감사 4건, 복무감사 3건 등 19건으로 나타났다.

종합감사, 재무감사, 복무감사 등은 통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특정감사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현안에 대해 정부 및 공익감사 제보 등으로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엔 본청 실국 및 소관 기관 보조금 감사, 제5차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등이 진행됐다.

올해 들어선 10월 말 기준 종합감사 12건과 재무감사·특정감사 각 11건, 복무감사 6건이 추진됐다. 이달부터는 종합감사 2건, 재무감사 5건을 추가 진행한다. 특정감사와 관련해선 강원테크노파크와 강원연구원에 대한 감사가 실시 중이다.

이와 함께 도감사위는 올해 추석명

절 대비 공직감찰 감사와 화천군 정기 종합감사 결과 등 5개 분야 31건, 재심의 등 32건의 처분요구에 대한 감사위를 31일 개최했다. 도감사위원회는 민선 8기 도정이 출범한 지난해 7월부터 이달 말까지 1년 6개월 동안 총 59건의 감사를 진행했다. 올해 추진했거나 예정된 감사는 총 47건이다.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특정감사가 늘어난 가운데 향후 예정된 감사까지 더해질 경우, 전임 도정 같은 기간과 비교해 감사건이 더 늘어난 것으로 보여진다.

도감사위 관계자는 "감사는 연간 계획에 근거해 이뤄진다. 매년 35건 정도 진행한다"며 "올해는 교육감사이관과 맞물려 인력이 충원돼 복무감사·특정 감사를 강화했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직자는 "감사는 당연히 필요하다"며 "다만, 일부 현안에 대해선 다소 무리하게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들도 있다"고 전했다. 박지은·김덕형

2023 11 01 ()

江原日報

01

산림엑스포·파크골프 인기에 9월 도내 관광객 '1,352만명'

145만명의 관람객을 모은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 등의 영향으로 올 9월 강원도에 1,350여만명의 관광객이 몰렸다.

강원관광재단이 지난 31일 발표한 관광동향에 따르면 올 9월 강원도를 찾은 전체 관광객은 1,352만177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0만7,420명(2.0%) 증가했다. 특히 강원세계산림엑스포가 열린 고성과 속초, 인제, 양양 등에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이 기간 고성에 117만명, 속초에 201만명, 인제에 88만6,000명, 양양에 137만여명 등 모두 543만여명이 다



나서갔다. 지난해 같은 기간 529만명이 다녀간 점을 고려하면 14만명 이상이 늘었다.

내비게이션 데이터 순위를 봐도 1위부터 10위까지 속초 3곳, 강릉 2곳, 양양 1곳 등 동해안 지역이 많았다.

강원관광재단은 강원세계산림엑스포와 인접 관광지 간 연계가 좋았고 솔방울전망대 등 주변 조망권이 확보된 점을 관광객 유치 성공의 이유로 꼽았다.

**전년 대비 20만7,000여명 늘어
고성·속초·인제·양양 '543만'
화천 파크골프 페스티벌도 한몫**

여기에 화천 파크골프 페스티벌 개최도 관광객들의 발길을 이끈 요인으로 꼽힌다. 올 8월부터 열린 '2023 화천 산천어 전국 파크골프 페스티벌' 개최 등의 영향으로 외지인 방문객이 급증했다. 화천중앙시장(169.02%), 토마토조각공원(120.09%), 88공원(66.20%) 등에서 방문객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김은겸 강원관광재단 관광마케팅실장은 "국내 관광객뿐만 아니라 해외 관광객들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행사들을 유치 및 개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규호기자

江原日報

수소클러스터 13일 예타 최종 평가

국내 수소산업 중 최대 규모의 투자가 이뤄지는 ‘동해·삼척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이달 중 나올 전망이다.

경제성(B/C·비용대비편익) 등의 평가수치가 통과를 위한 마지노선에 걸려 있어 긍정적인 결과를 장담하기 힘든 상황임판 분위기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강원특별자치도는 오는 13일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예타 조사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이날 산자부는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의 정책성 평가 결과를 발표하며 기재부가 사업 내용에 대한 질의 등 평가를 진행한다.

예타 통과 여부는 이달 말 또는 12월 초 발표된다.

동해·삼척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는 강원자치도의 3대 전략산업(바이오·반도체·수소) 중 최대 규모의 프로젝트다. 또 강원자치도 최상위 발전 플랜인 ‘2032강원 미래발전 전략’의 5대 산업 클러스터 조성 계획 중이라는 점에서 예타 통과에 사활을 걸고 있다.

김 지사는 올 6월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만나 예타 통과를 건의했으며 지난달 강원자치도 현지 국정감사에서도 국회의 지원을 요청했다.

통과 여부 이르면 이달 말 결정 통과 시 내년 국비 반영 가능 B/C 0.68 낙관 어려워... 道 3,221억 투자·세계기업 참여 강조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의 경제성(B/C·비용대비편익)은 0.68 수준으로 측정됐으나 종합평가 과정에 다소 상향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통과를 마냥 낙관하기는 어려운 수치다. 특히 기재부는 총 사업비 3,221억원(국비 729억원, 지방비 497억원, 민간 1,995억원) 중 민간투

자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자치도는 이에 액화수소 분야 세계 1위 기업인 린데코리아가 직접 참여하고 투자 의지도 확고하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강원자치도 관계자는 “예타 통과 시 내년부터 국비 투입이 가능해 사업이 본격화된다”며 “산자부 등과 함께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

다”고 밝혔다.

수소·저장·운송 클러스터는 동해·삼척 일원에 국내 최대 규모의 액화수소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동해시 자유무역지역 인근 북평제2산업단지에 ‘수소산업진흥센터’가 건립돼 기업 및 연구소가 입주한다. 수소저장·운송 첨단 기술 연구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삼척 호산항 LNG 생산기지는 액화수소 생산 플랜트가 구축돼 수도권과 중부권 전역 수소 공급의 거점기지 역할을 한다. 최기영기자

강원도민일보

춘천시립미술관 ‘사업성 미비’ 역세권개발사업 포함 불투명

시 “근화동 시유지 중심 재물색”

속보=춘천시가 역세권개발사업에 춘천시립미술관을 포함하는 방안을 구상(본지 8월 7일자 9면)했지만 사업성이 미비하단 의견이 제시되면서 포함 여부에 적신호가 켜졌다.

31일 본지 취재 결과 춘천시는 국가철도공단(KR)과 함께 근화동 499-1번지 약 51만㎡ 부지를 대상으로 춘천역세권개발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 중이다. 당초 로드맵상 지난 9월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조사사업을 신청할 예정이었으나 비용 대비 편익(B/C)을 높이기 위한 분석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용역기간을 내년 1월로 연

장했다. 예타에 한 번에 통과하지 못할 경우 다시 해당 사업이 통과하는 것이 어려운 만큼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단 판단에서다. 현재 KR 측에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결과가 도출될 때마다 시와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춘천시는 이 개발부지에 춘천시립미술관을 함께 구축하는 방안도 타진해왔으나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어 포함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시는 역세권개발사업 부지 이외의 근화동 시유지를 중심으로 다시 부지를 물색하겠단 입장이다. 육동한 시장역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근화동 인근 미술관 조성에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은

江原日報

도내 건축 인허가 면적 1년 새 ‘반토막’

감소 폭 전국서 네 번째로 커 부동산 경기 침체 반영 분석

3분기 강원특별자치도 내 건축 인허가 면적이 지난해의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3년 3분기 건축 허가·착공·준공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3분기 도내 건축 인허가 면적은 107만3,000㎡로 전년 동기(229만2,000㎡) 대비 53.2% 감소했다. 이는 17개 시·도 중 대전(-82.5%), 대구(-72.4%), 전북(-63.9%)에 이어 네 번째로 큰 감소폭이다.

도내 착공 실적 또한 저조했다. 올해 3분기 도내 착공된 건축물은 연면

적으로 89만4,000㎡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3분기(112만3,000㎡)와 비교해 20.4% 줄어든 수치다.

인허가·착공 실적은 집값이 하락할 때 감소하는 반면 집값이 상승할 것이란 기대감이 있을 때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올해 초부터 이어진 부동산 경기 침체가 건축물 인허가, 착공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반면 준공 면적은 유일하게 상승세를 보였다. 올 7월부터 9월까지 도내 건축물 준공 면적은 90만4,000㎡로 집계, 1년 전(83만2,000㎡) 수치에 견줘 8.7% 늘었다.

같은 기간 전국 수치 역시 인허가,

착공은 줄고 준공은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3분기 전국의 인허가 면적은 3,058만9,000㎡로 전년 동기 대비 32.8% 감소했다.

착공 면적(1,627만9,000㎡)은 1년 전보다 44.2% 줄었다. 준공 면적은 업무시설, 아파트 등 준공이 늘어난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8.1% 늘어난 3,437만3,000㎡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경기 후행 지표인 건축 준공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인 반면, 경기 선행지표와 동행지표 격인 건축 허가과 건축 착공은 둔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김현이기자 haha@kwnews.co.kr

江原日報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단 예타 통과 전력투구”

강릉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기업 설명회 참가 52개 기업 입주의향 밝혀... 도에서도 적극 지원

【강릉】강릉시가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단단지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해 총력을 펼치고 있다.

김종욱 강릉부시장을 비롯한 시청 국가산단 추진 관계자들은 지난 31일 서울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신규 국가산단단지 후보지 홍보를 위한 기업 설명회’에 참가해 전국 유일의 천연물 바이오 특화단지인 강릉 국가산단만의 투자 환경을 적극 홍보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바이오 분야의 유망 기업으로 손꼽히는 (주)메디헬프라인, 엠테라파마(주) 2개사와 신규 투자계획 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도 올렸다. 현재까지 강릉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단 후보지에 입주 의향서를 보낸 기업만 52개 업체에 달한다.

강릉시가 이처럼 기업유치에 올인하는 이유는 내년도에 실시될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의 경제



◇국토교통부 주최 ‘신규 국가산단단지 후보지 홍보를 위한 기업 설명회’가 지난 31일 서울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김종욱 강릉부시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성 분야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이다. 전문가들도 바이오 분야의 유망 기업 유치가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단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예타 조사 통과와 관련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천연물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 구축 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되면, 강릉이 천연물 바이오 산업의 최대 메카로 부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이사

업은 국내 그린바이오산업 거점 육성을 위해 추진되며, 강릉이 3대 후보도시에 올랐다. 5년 동안 국비 150억원 등 총 450억원이 투입된다. 지난달 30일 오후 공모사업 평가단의 현장평가가 진행된 가운데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평가단들에게 추진 의지를 피력하고, 김명선 도행정부지사가 브리핑을 하는 등 도에서도 힘을 쏟고 있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천연물 바이오 특화단지만의 경쟁력을 높여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기업 유치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최영재기자 yj5000@

江原日報

2023 11 01 ()

04

시·군체육회 “양구·태백 대회 출전 보이콧”

강원특별자치도 내 시·군체육회가 1일부터 양구와 태백에서 열리는 대회 참가를 전면 보이콧하기로 하면서 체육회와 지자체 간 갈등이 우려되고 있다.

앞서 도 시·군체육회장협의회는 지난 9월 정기회를 갖고 11월1일부터 스포츠재단을 운영 중인 양구와 재단 설립을 추진 중인 태백에서 열리는 전국 또는 도 단위 대회에 출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지자체장 산하에 있는 재단이 체육회의 기능을 가져가 민선 체육회의 의미를 퇴색시

스포츠재단 설립에 항의... 태백시체육회, 도여성생활체육대회 불참
지자체 “스포츠 마케팅 지역소멸 극복 위한 선택”... 갈등 심화 우려

킨다는 것이 이 같은 결정의 배경이다. 현재 삼척시체육회와 태백시체육회가 이사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안건을 통과시켰고, 타시·군체육회도 앞으로 예정된 이사회에서 이 안건을 다루기로 한 상황이다.

태백시체육회의 경우 지난달 28, 29일 철원에서 열린 ‘제2회 도여성생활체육대회’에 출전하기로 했던

127명의 선수단이 재단 설립 추진에 대한 항의 표시로 전원 불참했다. 대회 출전 보이콧이 현실화되면서 지방 체육회와 지자체 간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자체들은 재단 설립이 체육회의 기능을 뺏지 않는 것은 물론, 장점이 많다는 입장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재단이 설립되더라도 현재 체육회가

하고 있는 일은 그대로 맡게 된다”며 “시 입장은 재단 설립을 통한 체육대회 유치로 관광 등과 연계해 지역 발전을 꾀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효율적인 예산 활용도 강조했다. 태백은 올해 보조금을 한도액보다 65억여원 초과 지출해 2025년 교부세에서 41억여원의 페널티(감액)를 받게 됐는데 올해 보조금의 35%(59억여원)가 체육 분야였다. 재단을 설립하면 체육 분야에 보조금 대신 출연금을 활용할 수 있어 보조금을 아낄 수 있다는 것이 태백시의 주장이다.

이달 15개의 전국대회를 앞두고 있는 양구군스포츠재단 관계자는 “재단은 기존에 군청에서 하던 업무만 가져왔을 뿐”이라며 “스포츠 마케팅은 지역소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선택이다. 지역 특성에 따라 재단을 만든 뒤 호응을 얻고 있는데 이를 방해한다면 애꿎은 주민들만 피해를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양구군은 태백시와 태백시체육회 사이에서 발생한 갈등의 불씨가 되었다는 주장이다.

한편, 양희구 도체육회장은 지난 달 30일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을 만나 이 문제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기흥 회장은 지방 체육회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권순천기자 sckwon@

때아닌 우박·병해충 반복 가을배추 농가 울상

**도내 곳곳 뿌리혹·무름병 발생
“우박 탓 출하시기 일주일 늦춰”
도, 배추·사과 등 103ha피해 집계**

본격적인 가을배추 출하를 앞두고 강원도내 곳곳에서 매년 뿌리혹병 등의 병해충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 26일 갑작스러운 우박까지 떨어지면서 도내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31일 본지 취재 결과 춘천, 영월 등 도내 곳곳에서 재배되고 있는 가을배추가 매년 뿌리혹병과 무름병 탓에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이날 춘천시 서면 신매리 일대 배추밭에서는 재배가 한창이었던 배추가 눈에 띄었다. 대부분 뿌리혹병으로 인해 배추가 물러져 있는 상태였으며 약취까지 나는 경우도 있었다. 춘천시 서면에서 배추 농사를 짓고 있는 홍모(58)씨는 “서면 지역의 대부분의 밭을 살펴보면 밭 30~40%는 수확하지 못하고 버린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때아닌 우박까지 떨어지면 농작물 피해는 커지고 있다. 영월군 주천면에서 배추 농사를 짓고 있는 노모(64)씨는 김장철을 맞아 예약 판매를 받아놨으나 지난 26일 떨어진 우박으로 인한 피해



수확기를 앞둔 배추에서 병충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우 농작물 재해보험으로 보장 받을 수 있는 배추나 월동배추의 경우 농작물 재해보험으로 보장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식품부는 전남, 해남, 충북 괴산, 경북 영양 등에 시범적으로 가을배추 재해보험 판매를 실시했지만 강원도는 아직 대상이 아니다.

이에 도 관계자도 “국가 재난 시스템을 통해 오는 11월 8일까지 피해접수를 진행하고, 이후 정밀 조사를 진행해 우박 피해면적이 30ha 이상일 경우 인접 시군까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소비 촉진 등 대책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로 배송일을 일주일 가량 미룬 상태다. 노씨는 “우박으로 손상 입은 배추가 워낙 많다 보니 출하시기를 일주일 늦췄다”며 “원래 2500박스가 출하될 예정이었지만, 취소가 늘어나서 1800박스로 감소했다”고 토로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집계 결과 31일 기준 도내 총 103ha 면적의 농가가 피해를 입었다. 지역별로는 영월 57.6ha, 홍천, 26.5ha, 원주 10ha, 횡성 8.7ha로 집계됐다. 농작물 중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것은 63.3ha 규모의 배추가 가장 높았고, 사과 17.4ha, 껌 11ha, 콩 4ha, 팥 1.8ha, 울무 1.3ha, 파 1ha, 양상추 0.4ha, 버 0.3ha 순으로 피해가 발생했다.

하지만 고랭지 배추나 월동배추의 경우 농작물 재해보험으로 보장 받을 수 있는 배추나 월동배추의 경우 농작물 재해보험으로 보장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식품부는 전남, 해남, 충북 괴산, 경북 영양 등에 시범적으로 가을배추 재해보험 판매를 실시했지만 강원도는 아직 대상이 아니다.

이에 도 관계자도 “국가 재난 시스템을 통해 오는 11월 8일까지 피해접수를 진행하고, 이후 정밀 조사를 진행해 우박 피해면적이 30ha 이상일 경우 인접 시군까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소비 촉진 등 대책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정호·박재혁

강원도민일보

2023 11 01 ()

/ 19

서민층 생계비 부담 확 줄여야

-한국은행 조사,가계 재정상태·경기전망 비관나타나

지금은 물론 앞으로 경제상황에 대한 비관적인 인식과 심리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경기판단과 향후 경기 전망 모두 하락으로 조사됐기 때문입니다. 반면 금리수준 전망치는 9월 대비 10월이 8p 대폭 상승한 것으로 조사돼 고금리에 따른 부채 압박이 커질 것을 우려합니다. 임금수준 전망치는 낮은 대비해 물가수준 전망치는 큰폭상승을 보입니다. 가계 재정상태에 대한 인식도 좋지 않습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에서 강원지역 7개시 600가구를 조사해 발표한 10월 중 소비자동향에 의하면 현 생활형편이 전월보다 하락한 것은 물론 가계 수입전망 및 생활형편 전망에 대해 모두 9월 대비 3p씩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월 대비 가계 저축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가계 부채 압박은 더 커졌습니다. 현재와 비교했을 때 6개월 후 가계부채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 지수가 무려 6p나 뛰어올랐습니다.

심각성은 가계 재정상황이 좋아질 만한 부문이 전혀 없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개선의 여지가 적다는 점입니다. 제조업 기업 측에서도 자금 부족 현상은 조금 완화됐으나, 불확실한 경제상황 및 수출부진 우려가 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0월 강원지역 기업경

기실사지수에서 불확실한 경기에 대한 우려 지수가 9월 6.7%에서 10.1%로 급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0월 중 소비자심리지수는 98.8로 전월 대비 3.0p 하락으로 조사됐는데 경제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바로미터여서 내수 부진을 악화할 가능성이 더 커졌음을 알립니다.

어제 (10월 31일)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서 밝힌 것처럼 민생안정 대책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세심하게 살펴 국민이 체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제가 어려운 시기엔 서민층 생계비 압박이 큼니다. 각종 공산품 가격 안정을 비롯해 장바구니 물가 관리에 효과를 내야 합니다.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생계급여 지급액 인상은 바람직하며, 당장 겨울 나기가 관건이므로 식료품, 에너지, 교통 통신, 보건, 공공요금 등 필수 생계비 부담 경감책이 나와야 합니다.

또한 소비자와 기업 양측 모두 향후 생활형편 및 경기에 비관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으며, 불확실한 경기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는 형편입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구체적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취약점을 강화하는 중장기 시책을 긴밀하게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강원도민일보

2023 11 01 ()

/ 19

강릉 바이오국가산단 박차 가해야

-50여개 기업 입주 의향, 전방위 유치활동 필요

강릉시천연물바이오국가산단 후보지에 50여개 기업이 입주 의향서를 제출하는 등 진척을 보입니다. 예비타당성 통과를 위해 기업 유치 활동에 나서고 있는 강릉시로서는 청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관광에 의존해 온 산업 구조에서 탈피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는 지역에 국가산단은 새로운 성장 동력입니다. 하지만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고 최종 지정에 이르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도와 강릉시는 기존의 실적에 만족하지 말고, 기업 유치를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특히 기술력과 자본력이 뛰어난 앵커기업을 끌어들이는 데 힘을 쏟아야 할 때입니다.

바이오 관련 기업 유치 전망은 어둡지 않습니다. 지난 3월 후보지 선정 이후 시는 기업 유치 설명회, 박람회 참가 등 예비타당성을 대비해 사업 보폭을 넓혔습니다. 기업 입주 의향이 예비타당성 통과와 관련으로 보고, 지역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기업 유치 활동에 나섰습니다. 활동은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간 중견기업 1곳과 중기업 10곳, 소기업 41곳에서 입주 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7개월 만에 50여개의 기업이 입주의사를 표시해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산업단지는 구정면 금광리와 강남동 일대 환동해권 복합물류거점 단지 308만여㎡ 내에 사업비 2600여억원을 들여 93만㎡ 규모로 조성됩니다. 시는 이곳에 바이오 헬스산업과 천연물 바이오, 세라믹 관련 기업 입주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구로 최종 지정되면 입주 기업에 각종 세제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산단이 자리잡으면 직접 채용 3600여명을 포함해 2만여명의 고용이 창출될 전망입니다. 또한 총 3조 2000억원의 직접투자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단은 강릉시의 산업 구조를 재편하고, 지역을 비약적으로 성장시킬 계기가 됩니다. 그러나 산단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선결과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6년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고시되어야 합니다. 관건은 산업 생태계 조성입니다. 좋은 환경을 만들어 관련 기업을 유치해야 합니다.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전방위적인 홍보활동을 벌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시와 강원특별자치도는 최종 지정을 위해 기업 맞춤형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강릉을 후보지로 지정한 정부도 정책적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江原日報

2023 11 01 ()

/ 19

소 렘피스킨병, 밥상물가 자극하는 일 없어야 한다

렘피스킨병 확산 우려에 소고기 가격이 요동치며 밥상물가를 위협하고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축산물 유통정보에 따르면 10월23~26일 한우 평균 경락값은 1kg당 1만9,150원을 기록했다. 이는 렘피스킨병 국내 발병 직전인 같은 달 16~19일 평균 경락값(1만7,903원)과 비교해 7% 오른 가격이다. 렘피스킨병 확산에 따라 자극을 받는 모양새다. 같은 기간 도내 평균 한우(1+등급, 등심) 소비자기도 100g당 1만1,438원에서 1만2,028원으로 5.2% 뛰었다. 정부의 방역조치로 소이동제한이 걸리며 문을 닫는 도매시장이 늘자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 렘피스킨병 백신의 항체 형성 기간이 3주임을 감안하면 향후 최소 3주는 소이동제한기간이 연장되며 육우 재고 확보에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문제는 렘피스킨병의 장기화다. 그때는 어떤 처방을 써도 소고기 가격을 잡기가 쉽지 않을 것이 뻔하다. 소고기 소비심리 위축을 막는 것은 지금부터 전개될 방역 상황에 달린 셈이다. 유통업계는 1일 한우데이 행사를 위해 비축해 놓은 물량이 충분해 2~3주기량은 가격이 급등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을 경우 과장이 불가피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일시 이동중지 조치로 단기 도매가 변동이

있지만 현재까지 살처분한 소는 1,000마리 정도로 한우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전국 백신 접종을 완료할 경우 이달 중에는 렘피스킨병 확산세가 안정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 지금이 소고기 가격 안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이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물가 동향이 심상치 않다. 장바구니 물가만이 아니다. 한국은행 통계는 물가 오름세를 명확히 보여준다. 한은은 최근 소비자들의 향후 1년간의 물가 전망을 나타내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이 8개월 만에 반등했다고 발표했다. '10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3.4%로 지난달보다 0.1%포인트 올랐다. 앞서 나온 9월 생산자물가도 121.67(2015년=100)로 3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품목별로는 농림수산물, 공산품, 전력·가스·수도·폐기물 등이 두루 인상됐다. 수입품까지 포함해 가격 변동을 측정한 국내 공급물가지수를 보면 원재료, 중간재, 최종재 물가가 모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준다. 앞으로 적잖은 부담을 예고하는 지표다. 따라서 소고기 가격까지 전반적인 물가 오름세를 자극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

江原日報

2023 11 01 ()

/ 19

예산국회 시작... 道, 확보된 국비는 반드시 지켜야

내년도 나라살림살이를 결정할 국회 예산심의가 이번 주부터 본격 시작된다. '예산국회'는 지난 31일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는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전문가 공청회, 경제·비경제부처 예산심사 및 종합정책 질의를 진행하고 이어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부처 예산안을 심사하게 된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총지출 656조9,000억원 규모다. 올해 본 예산보다 2.8% 늘었으나 20년 만의 최소 증가 폭이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감액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초긴축 예산이다. 때문에 강원특별자치도는 어렵게 확보한 내년 국비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즉, 도는 이미 정부 예산안 단계에서 내년 국비 9조5,000억원 확보 목표를 달성했으나 긴축재정 기조에 따른 국회 상임위의 감액 방지에 주력해야 한다는 얘기다. 예결위 단계에서는 미반영된 주요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함은 물론이다. 국회 대응 주요 사업은 미래차 전장부품 시스템반도체 신뢰성 검증센터 구축(43억원), 전기차 재제조 배터리 안전성 평가시스템 기반 구축(25억원), 디지털 바이오칩 실용화 플랫폼 구축(56억원), 수소 저장 운송 클러스터 구축(12억원), 제2경춘국도 건설(480억원) 등이다. 도는 이미 확보된 국비는 반드시 지켜내고 반영이 안 된 사

업은 모든 역량을 발휘해 내년 정부 예산에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국회는 내년 예산안을 심의해 12월2일까지 본회의를 열어 의결해야 한다. 하지만 여야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각종 쟁점 사안에 대해 힘겨투기를 하고 있어 예산심의가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을지 걱정이다. 정기국회에서 예산심의는 다른 어떤 일보다 중요하다. 비록 큰 틀의 예산 편성은 정부가 하지만 국민 세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국회가 조목조목 따지지 않으면 안 된다. 여야 지도부는 정쟁에 몰두하느라 부

실·결합기 심의가 되는 일이 없도록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겠다.

예산심의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점은 여야 쟁점 사안과 예산심의를 연계하는 것이다. 비

록 연관성이 있는 문제라 하더라도 이를 결부할 경우 예산심의는 중단, 혹은 지연될 수밖에 없다. 대책 없이 손 놓고 있다 처리 시한에 쫓겨 막판에 흐지부지 통과시키곤 하는 게 해마다 반복되는 병폐다. '쪽지 예산'을 추방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예산심의를 마무리하면서 힘센 의원들끼리 지역구 사업을 위해 일정한 규모의 예산을 나눠 갖는 쪽지예산은 우리 국회의 부끄러운 적폐다. 이런 행태는 총선을 앞둔 해에 더욱 기승을 부린다. 여야 지도부, 예산결산특위 위원 등이 일찌감치 쪽지예산 편성을 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다짐할 필요가 있다. 쪽지예산은 혈세로 만들어진 세금을 도둑질하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윤 대통령 시정연설, 예산안 처리 협조 당부
道, 9조5,000억원 삭감 안 되게 역량 발휘를
여야 쟁점 사안과 예산심의 연계태선 곤란